

# AGAIN 기도회 특별메세지

## '산(山)' - 내가 오르려고 하는 산은?

### 1. 산

사람들은 왜 산에 오르는가? 많은 사람들이 산을 오른다. 이에 대해 영국의 등산가인 '멀로리 경'은 '산이 거기에 있기 때문이다. 산이 우리를 부르기 때문이다'라고 대답했다. 아주 단순한 대답이다. 그 단순함이 삶의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된다. 그래서 생각이 복잡해지거나 생각을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사람들은 산을 오른다.

산을 오르다 보면 두 가지 목적이 선명하게 남는다. 산 밑에서는 세상의 복잡한 문제가 뒤엉켜 있는 상태가 된다. 그런데 산을 오르다 보면, 먼저는 '산 정상에 오르고자 하는 마음'과 '산 정상에 가면 좋은 경치를 볼 수 있을 것'에 대한 기대감만 남게 된다. 수만 가지의 복잡한 생각이 정리되는 순간이다.

산을 많이 오르신 고수들은 등반 자체를 즐긴다. 엄홍길 대장은 '산을 오르다 보니 내가 산을 오르는 것이 아니라, 산이 나를 받아 주어 오를 수 있다'라는 심오한 이야기를 하기도 한다. 이것은 이미 '산과 내가 하나'가 된 경지에 이른 사람의 말이다. 이런 분들의 산행은 다른 사람과 다르다. 산 정상이 아니라 산 자체를 감상한다. 속도를 조절하며 산에 있는 꽃, 돌, 바위, 나무 등 많은 것들을 감상하며 산에 오른다. 이렇듯 산 자체에 엄청난 '철학'이 있는 것 같다.

### 2. 성경에서의 '산'

성경에서도 '산'에 대한 많은 이야기가 있다. 시편 24편 말씀에서도 누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 있는지 물으신다.

[시편 24:3-5]

- 3 누가 주님의 산에 오를 수 있으며, 누가 그 거룩한 곳에 들어설 수 있느냐?
- 4 깨끗한 손과 해맑은 마음을 가진 사람, 헛된 우상에게 마음이 팔리지 않고, 거짓 맹세를 하지 않는 사람이다.
- 5 그런 사람은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고, 그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다.

#### (1) 여호와의 산이 있다.

반드시 올라야 할 산이다(3절). 다른 산이 아니다. 성경은 여호와의 산이 있다고 말한다.

#### (2) 여호와의 산은 '거룩한 산'이다.

여호와의 산은 다른 산과 다르다. 거룩한 산이다.

#### (3)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격을 말한다.

여호와의 산이 허락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엄홍길 대장의 말처럼 산이 받아주는 사람은?) '깨끗한 손, 마음이 청결, 뜻을 허탄한 곳에 두지 않고 (마음이 팔리지 않고), 거짓 맹세하지 않는 사람'이다.

#### (4) 여호와의 산에 오르면 복을 받는다.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을 받을 사람이다.

알아야 할 것은 성경에서의 산은 여호와의 산으로, 반드시 올라야 할 산이라 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산을 올라야 한다. (선택사항이 아니다)

### 3. 예서의 산

여호와의 산! 반드시 올라야 할 산이 있다면, 반대로 오르지 말아야 할 산도 있다. 그 산은 어떤 산인가? 오바다 말씀을 보면 분명히 기록되어 있다. 바로 '예서의 산'이다. 예서의 산은 어떤 산인가? 오바다 1:8-9를 보면 분명하다.

[오바다 1:8-9]

- 8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날에 내가 예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예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 9 드만야 네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예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오바다 선지자는 성경에 기록된 오바다 말씀, 딱 한 장을 통해서 에돔의 멸망을 예언한다. 에돔은 어떤 나라인가? 이삭의 아들이었던 '에서'의 자손이 세운 나라이다. 야곱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 성경에서 에서는 어떤 인물로 묘사되는가? 에서는 팔 죽 한 그릇에 하늘의 장자권을 팔아넘긴 '땅의 사람'으로 묘사된다. 왜 장자권을 쉽게 여겼을까? 그가 땅에 속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그와 반대로 야곱은 하늘의 사람이었다. 하늘의 축복을 갈망하는 사람이었다. 결국 야곱에게 야곱의 사다리를 통해 하늘이 열리고, 그곳이 베엘이 되며, 결국 하늘의 축복을 씌름하여 얻어낸다. 그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다.

### (1) 에서의 산

성경은 두 분류의 사람을 보여준다. 땅의 사람과 하늘의 사람. 땅의 사람이 갈망하여 오르려 하는 산이 바로 '에서의 산'이다. 에돔은 이삭의 다른 아들 야곱이 세운 이스라엘과 다른 길을 걷는다. 마찬가지로이다. 이 땅에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 하나님의 산을 오를 사람과, 자신의 산을 오를 사람이다. 오바다 선지자는 두 나라가 가야 할 미래를 산을 통하여 비유하고 있다.

에서의 산은 '세일 산' (요르단 남부에 솟아있는 산)이다. 이 산의 특징은 '자기 스스로 선택하여 오른 산'이다. 여호와와의 산은 자기 스스로 오를 수 없다. 하나님이 부르셔야 한다. 그리고 그에 반응하여 오르는 것이지만, 에서의 산은 자신 스스로 결정하여 오른 산이라는 것이다. 바로 이 모습이 하나님 없이 사는 땅의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다.

### (2) 에서의 산이 심판을 받다.

8절을 보라. 하나님은 에서의 산에 오르는 자를 심판하신다 말씀하신다. 9절은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멸망할 것이라 말씀하신다. 결국 에돔은 역사의 한 줄을 장식하고 멸망을 당한다.

## 4. 하나님의 산 - 시온산

[오바다 1:17-18]

17 오직 시온 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18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라

에서의 산과 반대로, 하나님은 '시온 산'을 말씀하신다. 여호와와의 산이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산이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산, 다윗에게 나라를 세우시게 한 산. 솔로몬의 성전이 건축된 산). 시온 산을 오르는 자들은 야곱의 자손들이다. 하늘의 것을 찾는 족속들이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들이다. 하나님의 산을 오르는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 주목해야 할 것은 야곱 족속을 '불'로 만드시고(18절), 에서 족속을 지푸라기로 만드신다고 하신다. 지푸라기는 불에 태워진다. 결국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이 땅의 모든 권세가 굴복하게 된다. 그리고 19절-21절의 말씀을 보면, 에서의 자손에게 빼앗겼던 모든 땅들을 다시 하나님께서 찾아주신다. 놀라운 예언이다.

## 5. 호렙산을 오르며

오늘 우리가 올라야 할 호렙산은 이와 같다.

### (1) 하나님이 오르라고 하신 산이다.

그러므로 올라야 한다. 내가 오르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다.

### (2) 거룩함으로 옷 입어야 한다.

에서의 산에 오르고자 하는 욕망이 아니다. 하나님의 것을 찾는 거룩함으로 준비되어야 한다. 거룩함에 대한 갈망이 산을 오를 수 있는 준비이다.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

### (3) 산을 오른 사람에게 주는 축복 - 언약의 갱신 (모세를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신다)

하나님의 불을 본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떨기나무의 꺼지지 않는 불이다. 이 불이 우리 심령에 타올라야 한다. 그 불을 받을 것이다. 그 불이 나와 우리 가정, 그리고 교회와 이 민족에게 언약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킬 엔진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자. 한 민족을 구원시킬 수 있는 하늘의 권능을 받자.